

2019년



해외출장 가이드

베트남 호치민 출장자료

【 목 차 】

I. 국가개요	4
II. 정치·사회동향	6
III. 한국과의 주요 이슈	9
IV. 경제 동향 및 전망	11
V. 베트남 무역 및 FDI 특징	17
VI. 한-베 교역 동향 및 특징	24
VII. 투자환경 및 입지 여건	29
VIII. 기타 유용한 정보	36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국가 개요

□ 일반 개황

국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수 도	하노이
면 적	331,210 km ² (한반도의 약 1.5배) 남북 1,700km, 해안선 3,200km
인 구	약 9,704만명(2018.7월 추정치 기준, CIA World Factbook)
남녀 성비	49.4(남) : 50.6(여)
행정구역	5개의 중앙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
5개 중앙직할시	호치민(829만명), 하노이(732만명), 하이퐁(198만명), 껀터(125만명), 다낭(104만명)
공용어	베트남어
인 종	깁족(Kinh, 전인구의 85.7%) 등 54개 민족
종 교 (2013)	종교 인구 약 2,400만 명 중 불교(45.8%), 카톨릭(27.1%), 개신교(6.3%), 기타 (20.8%) 등
기 후	북부 아열대성, 남부 열대몬순
시 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 + 7시간)
한-베 수교일자	1992.12.22
화폐 단위	베트남동(VND, Vietnamese Dong)
환 율	1US\$ = 23,330 VND(2019. 8. 5일 시중은행 매매 기준)
정치제도	베트남 공산당 1당 체제
당서기장	Nguyen Phu Trong(응우웬 푸 쩡)
국가주석	Nguyen Phu Trong(응우웬 푸 쩡)
총 리	Nguyen Xuan Phuc(응우웬 쉐언 폭)
국회의장	Nguyen Thi Kim Ngan(응우웬 티 김 응언)



□ 베트남 역사

시 기	기 간	비 고
1차 중국지배	B.C.111 - AD 972	- 중국 한나라에 복속 - 쑹 자매 봉기
전기 Le(레, 黎)왕조	980 - 1009	- Le Hoan이 송나라를 물리치고 건국
Ly(리, 李) 왕조	1009 - 1225	- 최초의 자주국가 - 이 용상 왕자 고려로 망명. 화산이씨 시조
Tran(쩐, 陳) 왕조	1225 - 1400	- 몽고침입 격퇴
후기 Le(레, 黎)왕조	1427 - 1789	- Le Loi가 명나라를 격퇴하고 건립
남북 분립기	1789 - 1801	- 북 Trinh(쩐, 鄭)씨와 남 응원(nguyen, 阮)씨 대립
응원(nguyen, 阮)왕조	1802 - 1859	- 현재의 베트남 영토 확정
프랑스 식민시대	1859 - 1954	- 아르망조약으로 프랑스 보호국으로 전락
대미 항쟁시대	1954 - 1973	- 파리평화협정(종전) - 호치민 사망(1969)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973 - 현재	- 도이머이정책(1986)



II. 정치 사회 동향

□ 기본 정치 체제

- 정식 국가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며, 공산당 일당 정치체제하의 안정적 정권이 유지 중
-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 국회는 국가 최고권력기관,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는 국가 최고행정기관이라고 헌법에 명시됨.

□ 최근 정치동향

- 1986년부터 추진한 도이머이(刷新)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국가발전을 지속 추진함.
- 공산당 지배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체제안정을 위한 국민화합 및 경제개혁을 가속화 중
- 부정부패 척결 지속 추진 및 개혁개방 부작용 해소 노력
 - 개혁개방 추진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 확산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정 등 부패척결을 강조함.
 - 농촌 및 소수민족 등 경제발전 소외계층을 위해 농촌 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제 12차 공산당 전당대회(2016.1.20.-28)에서 정부 주요 인사 선출했으며, 현재 베트남 핵심 지도부는 ‘3인 체제’로 이들의 임기는 2020년까지 지속될 예정(전당대회는 5년마다 개최).
- 또한 2016~2020년 사회·경제 분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인준함.



베트남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내용

경제	2016~2020년 연평균 GDP 성장률	6.5~7%
	2020년 1인당 GDP	3,200~3,500달러
	GDP 대비 공업, 서비스 부문 비중	85%
	총GDP 대비 사회 투자 비율	32~34%
	재정적자 비율	GDP 대비 4% 미만
	총요소생산성(total-factor productivity)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30~35%
	2020년 도시화 비율	38~40%
사회	2020년 농업 부문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 수 대비 40%
	2020년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수 대비 65~70%
	도심 실업률	4% 미만
	의료보험가입 인구 비율	80%
	빈곤가정 비율	연간 1~1.5% 감소
환경	정수사용 인구 비율	도심 지역 95% 비도심 지역 90%
	폐수처리 비율	85%
	삼림피복률	42%

자료원: Resolution No. 142/2016/QH13

□ 대외관계

-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개혁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개방적인 외교기조를 유지
- ‘독립, 자존, 평화, 협력, 발전’과 ‘개방, 다양화, 다변화’라는 기본 원칙하에 중국, 북한은 물론 미국 EU 등 모든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
- 적극적인 다자외교 전개
 - 1995. 7 ASEAN 가입
 - 1998.11 APEC 가입



- 2007 WTO 가입
- 2008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
- 2010 ASEAN 의장국 수임
- 2017 제 25회 APEC 정상회담 개최(베트남 다낭시)

□ 사회적 특징

- 근면, 성실, 인내를 갖춘 민족으로서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함.
-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한 사회임.
- 6성조를 가진 베트남어가 공용어이며,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표기에 사용했으나, 8세기경 한자의 뜻과 음을 차용해 만든 쑤놈(Chu Nom)을 만들어 이용함. 18세기 말경 예수회 사제들이 쑤놈을 알파벳으로 옮겨 쓰면서 오늘날의 베트남 문자가 일반화됨.
- 공산주의 사회임에도 국민들의 종교 활동을 용인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 도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미신적 요소가 상존함.
- 전국에 450개 이상의 언론매체 및 560종의 인쇄매체가 발행되며, 국영 베트남 TV 이외에 각 성별로 자체방송국을 운영.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언론국)에서 인·허가 및 검열을 함.



III. 한국과의 주요 이슈

□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

- 1992년 12월 : 외교관계 수립 및 대사관 설치
- 1993년 11월 : 주 호치민 총영사관 설치
- 2007년 6월 : 한국-ASEAN FTA 발효
- 2015년 12월 : 한국-베트남 FTA 발효
- 2017년 11월 : 2017 APEC 정상회의
- 2018년 3월 : 한국-베트남 정상회의

□ 정치·외교

- 한국과 베트남은 2019년 기준 한-베 수교 27주년을 맞이함
 - 지난 27년 동안 양국은 정치·외교·경제·통상·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의 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음.
- 한국과 베트남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9년 합의)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 중
- 2018.3월 한국-베트남 정상회의를 통해 ①교역 천억 불 달성 협력, ②소재 부품산업 협력, ③교통 및 인프라 협력, ④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⑤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 ⑥고용허가제의 6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심화의 기틀을 마련함.

□ 경제협력관계

-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늘어나고 경제·문화·예술행사를 장애 없이 교환하고 있음.
- 베트남은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중임.



- 베트남은 많은 한국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문화 측면에서는 한류의 확산거점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자 4대 교역국
 -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682억 불을 달성했으며(2018년 기준), 1992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130배 이상 성장함.
 -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제 1위 교역대상국으로 그 비중이 약 44%에 달함.
- 투자부문에서도 베트남은 한국의 3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
 - 베트남은 미국,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은 '88.1~'19.6월 누적 기준 약 645억 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해 대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서 지위를 유지 중
 -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 부동산, 건설, 물류 등이며 제조업 투자 비중이 74%로 가장 높음.
-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발표 및 추진하기로 발표
 - 베트남은 한국의 4번째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으로서 신남방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 친한정서 및 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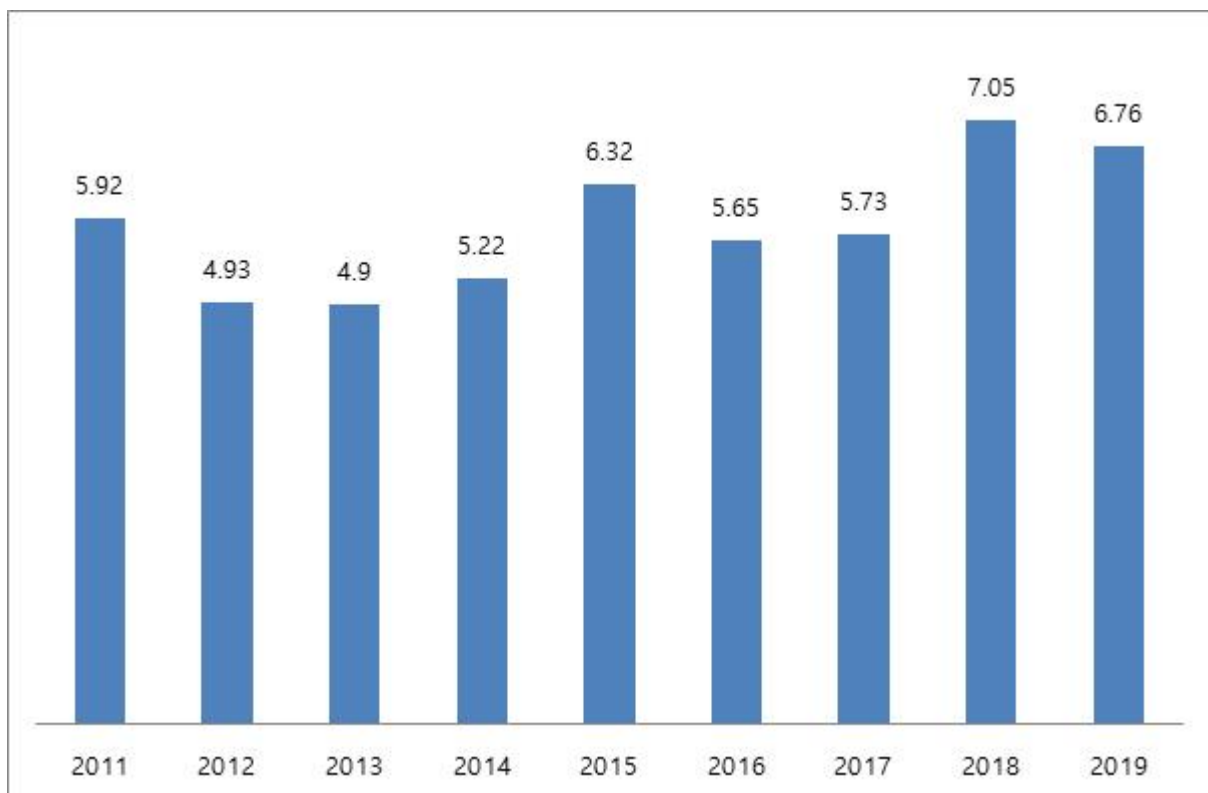
- 화산 이씨 등 역사적 유대감,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 및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음.
- 최근 베트남 내 한류는 드라마, K-pop, K-beauty, K-food 등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관광, 도서, 교육 등 그 영역이 점차 확대 중
- 한국 문화 콘텐츠 인기는 식품, 화장품과 같은 한국 제품 판매량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 수요도 확대 추세

IV. 경제 동향 및 전망

□ 2019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 동향

- 2019년 상반기(1~6월) 베트남 경제 6.76% 성장, 이는 2011년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치
- 산업별로는 농림수산업 2.39%, 제조건설업 8.93%, 서비스업 6.69% 성장함

연도별 상반기 GDP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생산, 소비, 교역 모두 안정적 성장세 지속(베트남 통계청)
- (생산) 베트남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 IPI)는 전년동기대비 9.5% 상승함. 특히 석유제품과 철강 생산이 호조를 기록함.



- (소비) 베트남 재화·서비스 판매액은 약 1,070억 달러(무역관 자체 환산)로, 전년동기대비 11.5% 상승함. 그 중 소매유통, 관광서비스 판매가 각각 12.5%, 13.3% 크게 증가함.
- (교역) 올해 상반기 베트남 총 교역액은 약 2,454억 달러로 이는 역대 상반기 교역 규모 중 최고치임. 수출액, 수입액 모두 1,22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각각 전년동기대비 7.3%, 10.5% 증가함.
- (FDI) 2019.1~6월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총 투자건수 6,371건, 총 투자금액 185억 달러로 투자액 기준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함.
* 총 투자액은 신규투자, 증액투자, 지분투자를 모두 합한 금액임.
- (CPI) 2019년 상반기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해 베트남 정부 목표인 4%이내 수준으로 양호함

□ 2019년 베트남 경제 전망

- 6% 중후반대 경제 성장 지속 예상
- IMF, 월드뱅크 등 주요 글로벌 경제기관들은 2019년 베트남 경제가 6.5~6.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IMF 베트남 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2017	2018	2019f	2020f
GDP 증가율	%	6.8	7.1	6.5	6.5
GDP 규모	억 달러	2204	2413	2,605	2,824
1인당 GDP	달러	2353	2551	2,728	2,929
CPI	%	3.5	3.5	3.6	3.8
외환보유액	억 달러	492	553	662	777

자료: IMF Country Report(2019.7.16. 발표)

- 월드뱅크, 연초 대비 경제 성장 모멘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긍정적 평가



-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발발과 농축산가의 생산 위축이 올해 상반기 농업 부문 성장을 둔화시켰다고 평가함.
- 동시에 무역 갈등, 금융 변동성 확대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국영 기업 및 은행 부문 개혁과 같은 베트남 취약성과 맞물려 리스크 가중, 베트남 경제 성장 저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힘.
- 한편, 월드뱅크는 베트남 관광산업 성장세에 주목하며, 관광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 성장이 베트남 내수 및 민간소비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함. 또한 베트남 정부가 구조개혁 강화, 수출 경쟁력 강화, 양자간·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 통합 가속 등을 통해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2019년 베트남 정부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목표

GDP 성장률	6.8%
소비자물가상승률	4% 이하
수출증가율	8~10%
사회개발투자비	GDP 대비 34%
직업교육을 받은 근로자 비율	60~62%
건강보험가입인구	88.1%
집단폐수처리시스템을 갖춘 산업가공지역	89%

자료원 : Resolution 01/NQ-CP,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 베트남 경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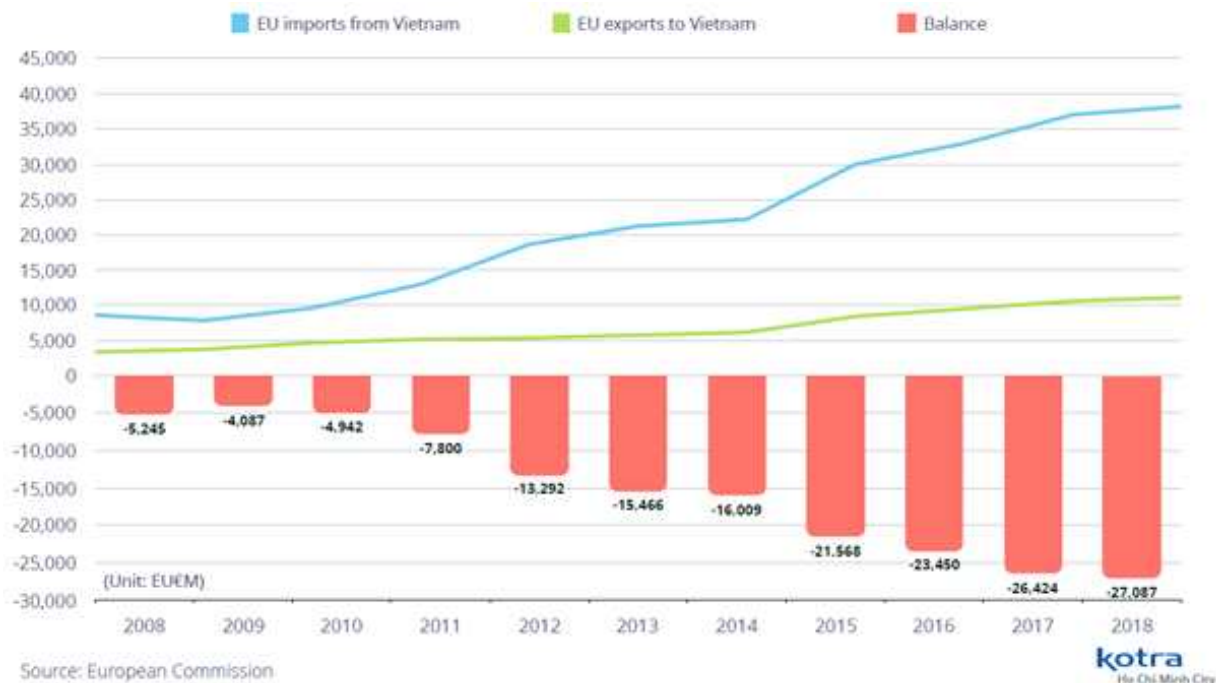
1) 정식 서명 마친 EU-베트남 FTA, 대EU 수출 증가 기대

- 2019년 6월 30일, 베트남과 EU 양측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FTA와 투자보호협정에 정식 서명했으며, 발효까지 비준 절차만 남은 상황
- EU-베트남 FTA 예상 경제 효과

- EU-베트남 FTA 발효 시 EU는 즉시 베트남 상품 70.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안에 99.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이에 따라 대EU 시장 수출 증가가 예상됨. 특히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EU는 미국 다음으로 큰 베트남의 2위 수출 시장임.
- EU로부터 투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의료, 제약, 은행, 금융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됨.
- 이 외에, 베트남의 식품 안전 및 품질 기준 향상, 법적 구조 현대화, 무역·투자 환경 강화, 글로벌 경제통합 가속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EU-베트남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EU 집행위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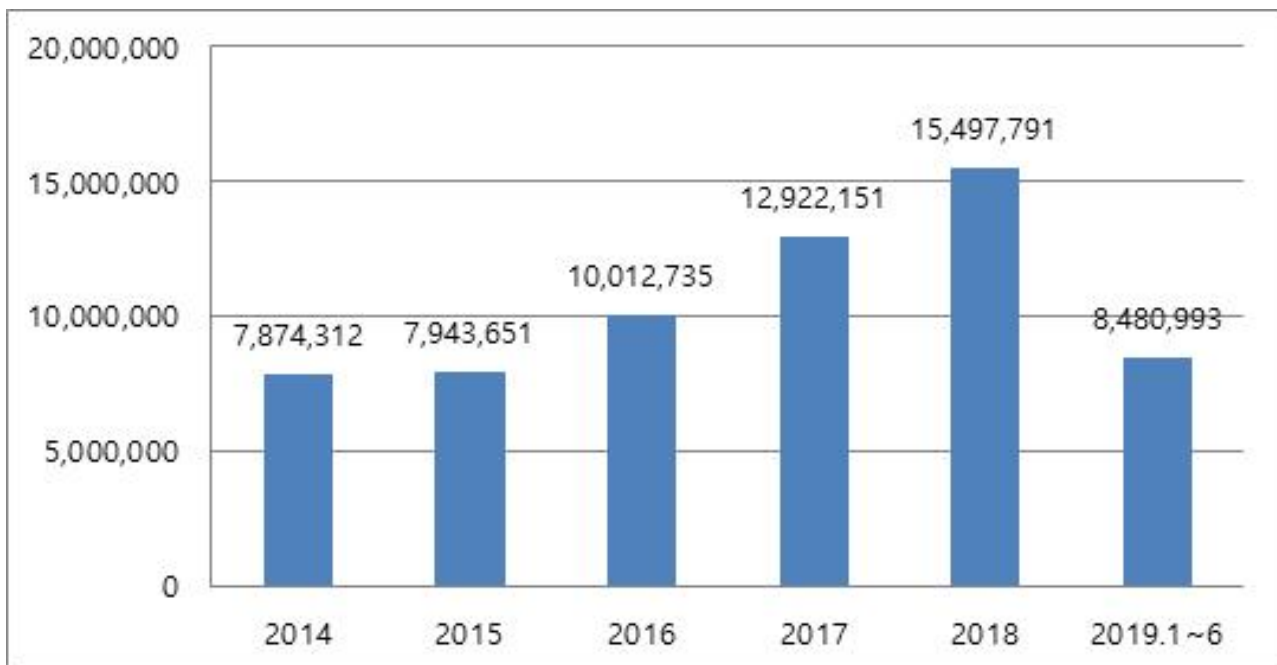
2) 베트남 경제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받는 관광산업

- 베트남은 다양한 자연문화유산 보유로 관광산업 매력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음.
- 2017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관광경쟁력지수 천연자원부문에서 베트남은 전체 136개국 중 34위를 차지함. 또한 베트남은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8개를 보유 중



- 올해 상반기 베트남 관광서비스 판매액은 약 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함. 같은 기간 베트남 방문 외국인관광객수는 848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함.
- 이러한 베트남 관광산업 호조로 베트남 항공업 성장 및 베트남 대기업들의 항공 사업 진출이 늘고 있음.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 역시 항공분야 자회사 빈펄에어(Vinpearl Air) 설립을 준비 중
-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관광산업을 사회경제 발전 원동력으로 육성 중임.
- 베트남 총리는 No.1861/QD-TTg을 통해 관광 인프라 개발, 관광 진흥 사업 강화, 인적 자원 개발, 관광 부문 국가 관리 개선 등 전반적인 베트남 관광 인프라 개발 및 관련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베트남 방문 외국인관광객 수(단위 : 명)



자료 : 베트남 문화관광체육부



3) 미중 통상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 될수록 베트남 경제에도 피해 가능성 존재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산하 중앙경제관리연구소 응웬안중(Nguyen Anh Duong) 거시경제정책과장은 “미중 무역 긴장이 계속 지속될 경우 글로벌 교역 및 경기둔화에 따라 베트남의 대외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언론 인터뷰함.
 - 특히 미국과 중국은 베트남의 1위, 3위 교역국으로서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경제 특성상 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임.
- 또한 중국의 베트남 우회수출에 대해 미국의 감시 상승 역시 베트남에 큰 부담으로 작용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중국 제품 수출 핵심 우회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감시를 늘리고 있음.
 - 미국은 올해 5월 대베트남 무역적자 확대로 베트남을 환율관찰대상국 9개국 명단에 추가하는 등 베트남을 주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위안화 평가절하, 중국산 제품 유입 증가 등이 베트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IV. 베트남 무역 및 FDI 특징

□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가. 개황

- 베트남 수출입 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꾸준한 증가, FTA 확장을 통한 글로벌 경제 통합 가속 등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
- 2019년 1~6월 베트남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한 1,227억 달러,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227억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1~6
수 출	1,624	1,759	2137	2447	1,227
수 입	1,656	1,732	2110	2375	1,227
무역수지	-31.7	27	27	75	0.3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나. 수 출

-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휴대전화기 및 부품, 전기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섬유·의류제품, 신발류, 기계·설비류가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특히 2014년 이후로는 휴대전화기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했으며, 2019년에는 컴퓨터 등 전기·전자제품(부품 포함)이 섬유제품을 제치고 수출 2위 품목으로 올라섬.
- 이에 따라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기·전자 산업이 베트남 수출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매김함.
- 주요 수출국은 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 등이며, 특히 1위 수출대상국인



미국으로 섬유·의류제품을 많이 수출하면서 대미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 중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 목 명	2016	2017	2018	2019.1~6
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34,505	45,085	50,003	23,517
2	전기전자제품/부품	18,480	25,882	29,446	15,547
3	섬유·직물제품	23,562	25,928	30,447	15,042
4	신발류	10,480	14,637	16,297	8,806
5	기계·플랜트 및 부품	9,330	12,785	16,528	8,224
6	목제품	6,916	7,604	8,855	4,867
8	수송수단 및 부품	5,985	6,967	7,985	4,277
7	수산물	7,019	8,353	8,831	3,934
9	철 강	1,962	3,100	4,558	2,157
10	카메라, 캠코더 및 부품	-	-	-	2,131

주 : 2019년 순위 기준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의 주요 수출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1~6
1	미 국	38,464	41,608	47,526	27,508
2	중 국	21,970	35,463	41,268	16,679
3	일 본	14,677	16,841	18,851	9,659
4	한 국	11,419	14,823	18,205	9,120
5	인 도	4,899	5,424	6,542	3,410
6	독 일	5,959	6,364	6,869	3,328
7	네덜란드	6,014	7,106	7,076	3,241
8	홍 콩	6,091	7,583	7,955	3,224



9	태 국	3,693	4,786	5,494	2,800
10	영 국	5,000	5,030	5,776	2,788

주 : 2019년 순위 기준 / 권역별로는 EU가 2위 수출 시장

자료 : 베트남 관세청

다. 수 입

-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은 각종 기계·설비 및 부품, 휴대전화 부품(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의류 원단, 플라스틱 원료 등 완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중간재·자본재가 중심을 이룸.
- 특히 베트남은 부품·소재와 같은 저변 산업이 취약해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부터 이를 수입하고 있으며, 산업 경기가 호조일 때 원부자재 수입이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지님.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 목 명	2016	2017	2018	2019.1~6
1	전자제품 및 컴퓨터	27,775	33,638	42,501	24,317
2	기계/플랜트 및 부품	28,085	37,501	33,715	17,885
4	원단	10,497	11,446	12,914	6,747
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0,559	16,182	16,010	5,855
5	철강제품	8,024	9,100	9,896	4,969
6	플라스틱 원료	6,283	7,355	9,097	4,407
7	자동차	5,872	5,327	5,379	3,693
8	기타 금속	4,804	5,445	7,317	3,173
9	플라스틱 제품	4,400	5,408	5,906	3,086
10	의류 및 신발 원부자재	5,097	5,464	5,741	3,016

주 : 2019년 순위 기준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1~6
1	중 국	49,930	58,229	65,438	35,686
2	한 국	32,034	46,734	47,497	22,526
3	일 본	15,034	16,592	19,011	8,835
4	대 만	11,221	12,707	13,228	7,159
5	미 국	8,708	9,203	12,753	6,918
6	태 국	8,796	10,495	12,023	6,010
7	말레이시아	5,114	5,860	7,450	3,528
8	인도네시아	2,971	3,640	4,918	2,656
9	인 도	2,746	3,940	4,147	2,112
10	싱가포르	4,709	5,301	4,524	2,028

주 : 2019년 순위 기준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외국인 투자동향

가. 개 황

-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9년 세계 경기 침체 및 베트남 국내 경제 불안에 따라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꾸준한 자금이 유입 중
- 88.1월 ~ 19.6월 누적 기준,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건수 28,954건, 총 투자금액 3,517억 달러임.

* 총 투자액은 신규투자, 증액투자, 지분투자를 모두 합한 금액임.



연도별 외국인 對베트남 신규 투자 동향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6
신규 투자건수	1,588	2,013	2,556	2,591	3,046	1,723
총 투자금액	20,231	22,760	24,372	35,884	35,465	18,469

주 : 신고 기준

자료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

2019년 1~6월 상위 외국인직접투자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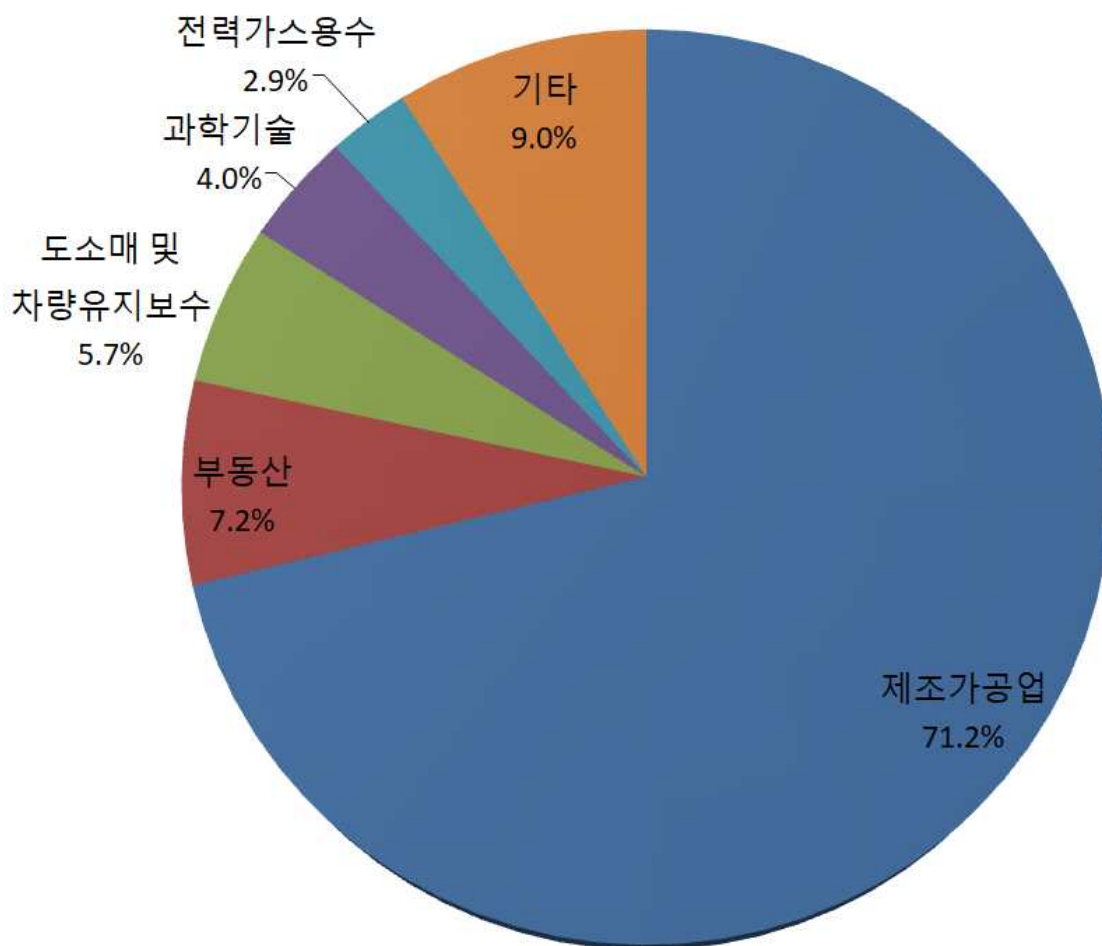
투자자/프로젝트	국가	분야	투자지역	투자액
Beerco Limited	홍콩	주류	하노이	38억 5천만 달러
ACTR	중국	타이어	떠이닌성	2억 8천만 달러
Goertek	홍콩	전자제품	박닌성	2억 6천만 달러
Hoa Hoi 태양광 프로젝트	태국	태양광	푸옌성	2억 1670만 달러
Guizhou Advance Type Investment co.,ltd	중국	고무, 타이어	띠엔장성	2억 1440만 달러

자료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 2007년 WTO 가입에 따라 유통업, 무역업, 요식업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한을 두었던 분야가 개방됨. 이에 따라 제조업에 집중되었던 외국인 투자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 중(일부 조건부 투자분야 유지)
- 기존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원부자재 수입 후 가공, 수출하는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베트남 외국인 투자는 유통·서비스, 프랜차이즈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도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유치를 우대

- 2015년 투자법 개정예 따라 투자 허가 분야를 명확히 하고, 투자 허가 기관을 총리/시·성 인민위원회 계획투자국/공단 운영위원회로 체계화 하는 등 투자환경 지속 개선 중

업종별 대베트남 외국인투자 비중(2019.1~6월)



자료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

나. 국별 투자동향

- '88년 1월 ~ '19년 6월 누적 기준, 한국이 베트남에 646억 달러를 투자해 금액기준 1위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579억 달러), 싱가포르(491억 달러), 대만(319억 달러)이 뒤따르고 있음.



- 최근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과거 봉제·섬유 등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양상이며, 유통·서비스업(프랜차이즈, 금융, 교육 등)에 대한 투자 수요도 증가 추세

주요국별 대베트남 투자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88.1.1. ~ 2019.6.20 누적		2019.1.1 ~ 6.20 누적	
국가명	총 건수	총 투자액	총 건수	총 투자액
한 국	7,905	64,551	1,982	2,731
일 본	4,190	57,900	701	1,950
싱가포르	2,266	49,162	440	2,199
대 만	2,645	31,927	411	783
홍 콩	1,554	21,306	251	5,304
버진아일랜드	816	21,275	80	774
중 국	2,461	15,452	1,057	2,286
말레이시아	599	12,505	108	45
태 국	540	10,699	93	489
네덜란드	339	9,578	39	145
전체 합계	28,954	351,656	6,371	18,469

주 : '88.1월~'19.6월 누적 기준 순위

자료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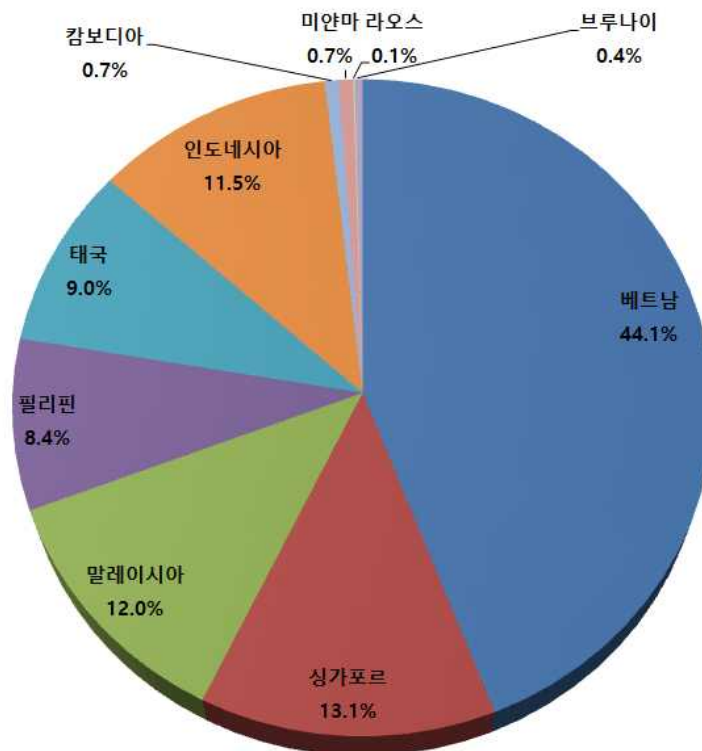


VI. 한국과의 교역 동향 및 특징

□ 한-베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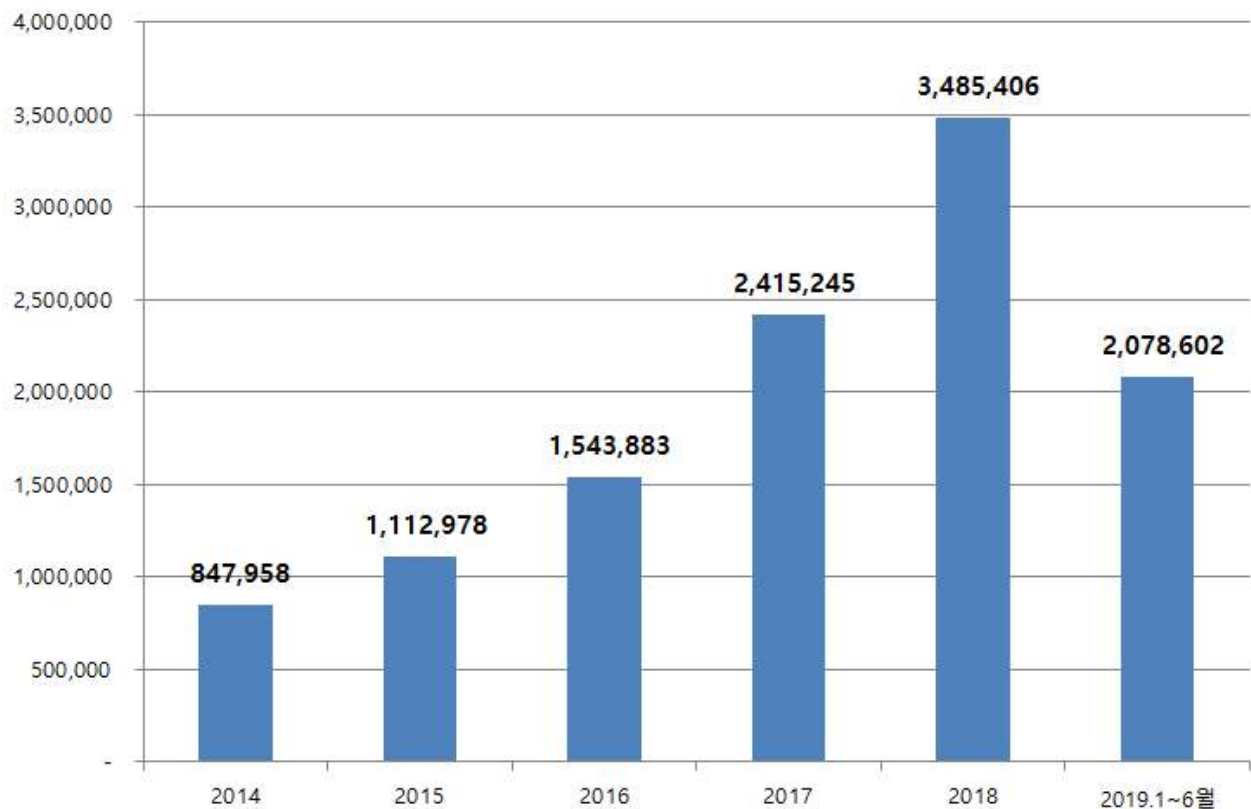
- 베트남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국
 - 우리나라의 대ASEAN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4%이며, 이 외에도 투자, 인적교류, 관광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제 1의 협력국가로 자리잡음.
 - 양국 간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뿐 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ASEAN 국가별 교역 비중(2019.1~6월)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우리나라 베트남 방문 관광객 수(명)



자료원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함.
 - 또한 양국간 교역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130배 이상 증가함(1992년 5억 달러 → 2018년 682억 달러 교역액 달성)
 - 우리나라는 대베트남 무역을 통해 매년 큰 액수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2018년 기준 290억 달러 무역흑자 발생).
- 한국-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에 발효돼 2019년 기준 5년차를 맞이함
 - 한편 베트남의 시장 개방 확대(EU-베트남 FTA, CPTPP 등)에 따라 베트남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품목 역시 점차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 10대 수출대상국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10		2014		2018		2019.1~6	
중국	116,838	중국	145,288	중국	162,158	중국	65,684
미국	49,816	미국	70,285	미국	72,736	미국	36,910
일본	28,176	일본	32,184	베트남	48,629	베트남	23,112
홍콩	25,294	홍콩	27,256	홍콩	45,999	홍콩	16,207
싱가포르	15,244	싱가포르	23,750	일본	30,574	일본	14,255
대만	14,830	베트남	22,352	대만	20,794	인도	8,022
인도	11,435	대만	15,077	인도	15,611	대만	7,654
독일	10,702	인도	12,782	필리핀	12,061	싱가포르	6,655
베트남	9,652	인도네시아	11,361	싱가포르	11,850	멕시코	5,696
인도네시아	8,897	멕시코	10,846	멕시코	11,459	말레이시아	4,49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 주요 수출 품목

- 대베트남 수출은 한국의 현지 투자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이들 기업들의 현지 생산활동을 위한 각종 기계·설비류 및 원부자재 수요증가에 힘입은 바가 큼.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을 보면, 중간재·자본재의 수출 비중 (약 95%)이 소비재보다 절대적으로 높음.
 - 특히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최대 투자 산업인 전기·전자 관련 품목 비중이 높음.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기구부품, 석유제품 제품 등임.
- 최근 한류를 이용하여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베트남 내수소비시장 경쟁 심화로 기대만큼의 증가세는 보이고 있지 않음.
- 한국-베트남 FTA(2015.12.20일 발효)는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고 원산지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



기회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품 목 명	2016	2017	2018	2019.1~6
반도체	4,574	9,235	10,939	5,66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514	7,367	8,909	3,124
무선통신기기	5,192	3,286	2,632	1,331
기구부품	1,657	2,612	2,332	1,068
합성수지	1,203	1,442	1,659	796
석유제품	1,093	1,978	1,980	756
플라스틱 제품	744	1,152	1,205	600
철강판	820	985	1,049	570
광학기기	437	794	944	526
자동차	920	852	876	513
기 타	14,955	18,808	15,874	8164
합 계	32,651	47,749	48,629	23,112

주 : 2019년 순위 기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 주요 수입 품목

- 2019.1~6월 기준 대베트남 5대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의류,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신변잡화, 컴퓨터이며 총 수입액 대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특히 의류, IT기기, 신변잡화 등의 공산품은 주로 현지 한국투자 기업들로부터 역수입이 주류를 이룸.
- 이외에도 베트남의 다양한 농·수산물도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한-베트남 FTA 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베트남 제품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품 목 명	2016	2017	2018	2019.1~6
무선통신기기	3,145	3,964	4,835	2,622
의 류	2,449	2,874	3,570	1,50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6	604	1,137	733
신변잡화	642	797	980	510
목재류	428	511	793	358
컴퓨터	552	560	534	328
산업용 전기기기	287	317	416	228
기구부품	268	496	445	216
영상기기	340	400	362	185
기타섬유제품	212	262	329	172
기 타	4,205	5,279	6,164	3,109
합 계	12,495	16,176	19,632	9,969

주 : 2019년 순위 기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VII. 투자 환경 및 입지 여건

□ 긍정적 투자환경

- 정치사회적 안정성
 - 베트남은 중국, 인도 및 ASEAN 국가 중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 공산당 1당 체제일 뿐 만 아니라 유교문화권 국가로 종교적인 갈등이 거의 없음.
- 저렴하고 풍부하며 우수한 노동력
 - 세계에서 15번째로 많은 인구(약 9,700만 명), 높은 젊은 인구 비중(30세 이하 인구 50% 이상) 등 미래발전형 인구 구조를 가졌으며, 문맹률이 3% 미만임.
 - 유인인구기금(UNFPA)은 베트남이 '황금 인구구조'로 진입했다고 평가 (황금 인구구조란 만 16~59세의 노동인구수가 비노동 인구의 두 배 이상인 시기를 말함).
 - 또한 대체적으로 근면성과 손재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며, 저렴한 인건비 역시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
- China Risk 회피를 위한 대체 생산거점
 - 중국의 인건비 상승, 환경 등 각종 규제 강화, 미중통상분쟁 장기화 등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 추세. 이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체 생산기지로 베트남을 주목
 - 일본기업들은 China+1의 전략 하에 캐논 등 많은 전자부품회사들이 진출했으며, 삼성·LG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역시 베트남 투자진출을 위해 꾸준히 투자 중.
 - 특히 베트남은 최근 미중통상분쟁에 따른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 이전 수혜를 받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높은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시장 유망성
 - 최근 5년간 베트남 GDP 성장률은 6~7%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
 - 1인당 GDP는 2008년 1,000 달러 수준에 진입한 이후, 2018년 2,500 달러를 넘었으며, 이에 맞춰 구매력이 역시 확대되고 있음.
 - 2020년경에는 인구 1억 명 이상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 WTO 가입 이후 서비스 개방 일정에 따라, 유통, 무역,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차별을 줄이는 등 베트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 중
- 적극적인 무역 및 경제 협정 참여에 따른 성장 잠재력
 - 베트남은 ATGIA(아세안상품무역협정), ACFTA(중-아세안), AKFTA(한국-아세안), AJCEP(일본-아세안), VJEPA(일본-베트남), AAANFTA(베트남-호주-뉴질랜드), AIFTA(인도-아세안), VCFTA(칠레-베트남), VKFTA(한국-베트남), VEFTA(EU-베트남) 등의 다양한 양자간·다자간 FTA를 체결하여 글로벌 경제 편입 속도를 가속화 중
 -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발효, EU-베트남 FTA 정식 서명 등 시장 개방이 지속 확대되어 이로 인한 다양한 사업기회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됨.

□ 부정적 투자환경

- 인프라 부족
 - 도로, 항만, 전력 등 사회 기반시설 공급이 외국인 투자수요 대비 부족하며, 서비스 질도 낮은 수준임.
 - 인프라 구축 비용의 대부분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공적개발원조로 충당되고 있으며, 프로젝트 지연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고급인력 부족
 - 하노이 및 호치민 인근을 제외하고는 외국어 능숙자 및 중간관리자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움.
 - 베트남은 아직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 숙련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움.
 - 특히 최근 첨단기술 및 전문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 인력 수요도 늘고 있지만 인력 공급은 제한적
- 복잡한 행정절차, 행정체제 미흡 및 커미션 문화
 - 베트남 법령은 세부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이 미흡하여 담당 공무원의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별로 법규 적용 차이를 보이는 등 법 행정체계가 미흡함.
 - 또한 많은 거래관계에서 커미션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로 Under Table Money 관행도 흔히 발견할 수 있음.
 - 참고로 국제투명성 기구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175개국 중 119위로 부정부패 정도가 높음.
 - 최근 베트남 정부는 부패방지법 개정('19. 7. 1일 발효)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 중
- 투자 및 경영비용 증가
 - 최근 몇 년간 외국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지속 확대되면서, 공장 설립에 필요한 토지임차료, 인건비 등 투자 진출 관련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 추세
 - 베트남 정부에서 물가억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경제성장 및 FDI 증가로 투자 비용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
- 부품 및 원부자재 수급 애로
 - 지금까지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단순 임가공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베트남은 부품·소재 등의 기반산업이 매우 취약함.
 - 원부자재 수입관세가 매우 낮거나 면제된다 하더라도 원자재 적시 공급 및 물류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국내 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아직은 낮은 소비력과 가격 중심 시장
 -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함. 이러한 낮은 소비력 때문에 베트남 소비자들의 주된 구매 결정 요인은 '가격'임을 명심해야 함.
 - 다만 최근 5년간 연평균 6%대의 안정된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증대로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를 고려하는 소비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산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 가능

□ 입지 선정 요소별 고려요소

- 물류여건
 - 항만, 도로사정이 열악하며, 국내 물류시스템의 미비로 부품원자재 및 상품의 하역·운송 등의 물류여건이 좋지 않음.
 - 내륙에 위치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운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실제 방문을 해보면 물류 이슈가 자주 발생함.
- 인프라 정비
 - 대부분의 산업공단(IZ, IP)은 비교적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외곽으로 나갈수록 토지 임차료는 저렴하지만 인프라 미비로 예상치 못한 경비가 발생함.
- 노동인력 수급
 - 산업발전과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라 노동력 인력수급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함.
 - 특히 주변 공장 완공 시 노동력 확보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문제로 이어짐.

- 현지 자재와 부품조달의 용이성
 - 현지 원부자재 공급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 운송비용이 과다하여 채산성 확보가 어려움.
 - 입지 선택 시 진출업종에 소요되는 부품과 자재를 인근 지역에서 용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함.
- 기타 고려요소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 및 배후시장 여건
 - 최근 환경오염유발 산업에 대한 투자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함.

□ 투자지역선정

- 남부지역 vs 북부지역

베트남 남부, 북부지역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남부 (호치민 중심)	- 소비 문화 발달 - 높은 1인당 GDP (약 6~7,000달러 추정) -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관행 - 섬유, 신발 산업 발달	- 인건비 상승추세(호치민 인근) - 높은 토지임차료 (호치민, 동나이 등) - 인력확보 애로(호치민 인근)
북부 (하노이 중심)	- 베트남 정부의 수도 개발 계획 (특히 건설 인프라 분야) - 전기 전자 산업 발달 - 중앙정부 접촉 용이	- 인프라 정비 미흡 - 인력 수급 문제 - 남부 대비 낮은 소비력

○ 공단지역 vs 일반지역

- 공단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고 공단관리위원회가 인허가 수속을 대행. 다만 임차료가 비싸고 관리비를 부담해야 함.
- 일반지역은 공단에 비해 인프라나 사업여건이 다소 낙후되어 있으나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임차할 수 있음. 다만 토지임차료와 별도로 임차 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토지보상비를 지방정부에 지불해야함. 개인소지 토지의 경우 토지용도, 증빙서류 확인 등 행정부분에서 주의를 요함.
- 외투기업의 경우 정책적으로 공단 외 지역 투자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공단 이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인민위원회에 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 절차를 진행해야 함.

공단과 일반지역 입주 시 비교

구 분	승인기관	장 점	단 점
공단	지방정부 공단관리 위원회	- 인프라 기반 - 인허가 수속 대행 - 물류여건 양호 - 토지보상비 부담없음 - 세관입주 공단은 수출입 통관 편의	- 높은 토지임차료 - 관리비 부담
일반 지역	지방 인민위원회 기획투자부 (DPI)	- 저렴한 토지임차료 - 인력확보 용이 -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	- 인프라 정비 미흡 - 인허가 수속 직접수행 - 물류여건 낙후 - 토지보상비 부담 - 부대비용 발생 가능

○ 경제특구(EZ, Economic Zone)

- 경제특구는 투자자를 위한 특별우대 및 기존의 투자사업 환경과 분리된 경제지구로서, 베트남 총리가 지정하며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베트남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
- 경제특구는 산업제조, 서비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상업, 은행, 금융의



허브 역할을 위한 특구이며, 규모는 10,000ha 혹은 그 이상

- 비관세지역, 관세지역, IZ, EPZ, 관광지역, 도시지역, 복합주거지역, 행정본부 지역 등 다양한 기능적 성격을 띤 지역으로 구성
- 지역에 따라 우대혜택 적용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전문의가 필요

○ 법인세 우대사항

- 베트남의 표준법인세율은 20%임(단,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32~50%의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은 투자 분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공단에 신규로 설립되는 제조법인은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최대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최대 4년간 법인세 50% 감면 가능
- 그러나 해당 공단이 사회-경제 우수지역에 속하면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공단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함.



VIII. 기타 유용한 정보

□ 시장특성

- 풍부한 인구와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약 9,700만 명 이상 달하는 풍부한 인구와 매년 6~7%씩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시장규모 지속 확대 중
 - 2020년 후반 인구 1억의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국으로서의 역할 기대
- 민영화 진전 불구 국영기업 파워 여전
 - 베트남 국영기업은 베트남 산업에서 50~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전력, 통신, 석유·가스, 방송 등의 분야에서는 거의 100%에 달하는 독점적 구조를 형성함.
 - 한편 2016년 말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으며, 공기업 민영화·주식화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중
- 경제력과 구매력이 주요 대도시 집중
 - 도·농간, 지역별 소득격차가 심해 고가 브랜드 제품 수요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함.
 -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약 6~7,000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베트남 평균의 2~3배 수준
- Low/High가 뚜렷한 시장
 -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불 수준에 불과하지만 두터운 고소득층이 존재하여 고가품 시장이 발달함.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격에 민감함.
 - 소비재의 경우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로 무조건 저렴한 제품보다는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



- 높은 브랜드 선호도 및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 일반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편임.
 - 한류와 삼성(휴대폰, 가전 등), LG(가전, 화장품, 생활용품 등), 현대·기아(자동차) 등 주요기업 투자진출 및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으로 인해 한국의 국가브랜드는 높음.
 - 유명브랜드 제품의 복제품 또는 유사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지재권 보호 등 정부차원의 규제는 아직 미흡한 실정
- 아세안 10개국 제품 수입 시 무관세 적용
 - 아세안 10개국 제품은 베트남 수입 시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 적용으로 대부분 0~5% 이내의 낮은 관세가 부과됨.
 - 한국산 제품(특히 소비재) 역시 AKFTA(한-아세안, 2007년 발효), VKFTA(한-베, 2015년 발효) 적용으로 일반특혜관세(MFN)에 비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받지만 ATIGA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 적용 대상임.

□ 베트남 기후 특성

-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지형 특성상 남과 북의 기후 차이가 큰 편이며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연 평균 1,800mm 정도 기록함.
 - 호치민시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우기(5~10월)와 건기(11~4월)가 6개월씩 교차되며,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미묘한 4계절의 변화가 있어 연말과 연초의 기후가 한국의 늦가을 날씨와 유사함.
 - 북부 지역은 아열대로 연간 온도 차가 커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차이가 약 20℃에 달하는 지역도 있으나, 남부 지역은 열대 몬순기후로 연간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 연간 최저 및 최고기온 차는 약 7℃ 임.
- 호치민시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더우며 건기와 우기에 맞는 복장 준비가 필요함.
 - 건기(11월~4월) : 날씨가 매우 무더우므로 복장은 여름 복장에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면 도움이 됨



- 우기(5월~10월) : 계절라성 호우가 잦으므로 우산이나 비옷을 준비하면 도움이 됨

□ 시차 및 근무시간

- 베트남은 GMT+7 시간으로 한국보다 2시간 늦음(한국이 12:00일 때 베트남은 10:00)
- 관공서와 은행은 주 5일 근무제(월~금)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기업들은 토요일에 근무하는 곳들도 존재함.
 -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경우 07:30~16:30이며, 일반 기업은 08:00~17:00임
 - 점심시간은 대개 11:30~13:00 또는 12:00~13:30이며, 점심시간 동안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오침함.
- 상점과 식당 등 업소의 영업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08:00에서 22:00까지며, 야간 업소의 경우 24:00까지 영업

□ 현지활동 참고사항

- 출입국
 - 한국인은 베트남 출국 항공권 및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을 소지 한 경우 1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며, 무비자 입국 후에 현지에서 연장을 하려면 여행사 보증이 필요하며, 30일내 무비자 재입국이 불가함.
 - 베트남에서 출국 시 최대 휴대 가능한 금액은 5,000 달러
- * 참고 : 호치민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
 - 주소: 161 Nguyen Du St, D.1, Ho Chi Minh
 - 전화: (84-28)3829-9398
 - 팩스: (84-28)3824-4075



○ 시내교통

- 버스와 택시가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나, 버스는 외국인이 이용하기 다소 까다로움. 지하철은 현재 공사 중(2020년 개통 계획이나 미정)
- 택시 요금은 미터제로서 기본요금은 11,000~12,000동으로 회사마다 상이함(공항에서 시내까지 약 15~20만동 : 6~9불 수준).
- 주요 택시회사로는 Mai Linh(녹색바탕, 38383838 번호 표시)택시와 VINASUN(하얀 바탕, 하부 녹색, 38272727 번호 표시) 택시가 있음.
- 최근에는 Grab, TADA, Be, FastGo 등 차량 공유 모바일 앱이 대중적임.

○ 환전 및 신용카드

- 화폐 단위 : Vietnam Dong(동, VND로 표기)
- 화폐종류 : 천동, 이천동, 오천동, 만동, 이만동, 오만동, 십만동, 이십만동, 오십만동이 있으며, 모든 지폐에는 호치민 초상이 있음.
- 시내 도처에 있는 환전소나 은행에서 달러를 베트남 동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음.
- 호텔과 고급 식당 이외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음.

○ 위생 및 질병

- 석회질이 다량 포함된 현지 수돗물 대신 생수사용을 권함.
- 식당에서 음료, 맥주를 시키면 얼음을 넣어 주는데 고급식당이 아닌 경우 얼음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열을 동반하는 열성 급성질환인 뎅기열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치안상태

- 베트남의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보행 중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 함.
- 야간에는 단독 행동을 삼가고 골목길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매춘, 마약, 도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 금물임.



○ 팁 관행

- 베트남에는 팁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택시 이용 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음.
- 벨보이나 호텔메이드에게 2만동(1불정도)을 주는 것이 관행임.

□ 기타 주의 사항

○ 선교·포교활동 금지

- 베트남에서 모든 외국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나, 베트남의 풍속 및 관습에 심하게 위반되는 종교집회 또는 노상의 종교 활동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엄격하게 통제를 받음.
- 특히 외국인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또는 포교행위는 절대 금하고 있으며, 발각 시 추방 등 강경제재 조치를 받게 됨.

○ 관공서 관행

- 베트남 관공서의 업무처리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에게 환영 받지 못함. 특히 잦은 서류 보완 요청, 고자세, 불친절 등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음.

**참고 호치민 식당 정보 및 주요 관광지****☐ 한식당**

식당명	주 소	전 화
대장금 (한식, 중식)	1st Fl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Dist.1	(84-28)3825-7974
예가 (한식, 중식)	13th Fl Diamond Plaza, 34 Le Duan st, Dist.1	(84-28)3824-8596
한누리 (한식, 활어회)	11A Ton Duc Thang st, Dist.1	(84-28)3829-4855
최고집 (한식)	161 Ham Nghi, Dist 1	(84-28)3914-2005
경복궁 (한식)	52 Hai Ba Trung st, Dist 1	(84-28)6682-7249
본가 (한식)	45 Ly Tu Trong st, Dist 1	(84-28)90-1317335
아리랑 (한식)	3rd Fl, 2 Dong Khoi St, Dist 1	(82-28)3823-1983

☐ 베트남식당

식당명	주 소	전 화
Maxim's Nam An	13-15-17 Dong Khoi St, Dist.1	(84-28)3829-6676
Ngoc Suong (해산물)	172 Nguyen Dinh Chieu st, Dist.1	(84-28)3930-2379
Mandarin	11A Ngo Van Nam St, Dist.1	(84-28)3822-9783
Tib	187 Hai Ba Trung, Dist.3	(84-28)3829-7242
Dong Pho	57 Ho Xuan Huong Dist 3	(84-28)3930-7665
Quan An Ngon	160 Pasteur st, Dist.1	(84-28)3827-7131
Pho 2000(쌀국수)	1-3 Phan Chu Trinh st, Dist.1 (2nd Floor)	(84-28)3822-2788
Pho Hoa(쌀국수)	260c Pasteur St, Dist.3	(84-28)3829-7943



□ 호치민 인근 주요 관광지

구분	사진	주요 포인트	거리
통일궁 (Hoi Truong Thong Nhat)		135 Nam Ky Khoi Nghia, Dist 1, HCMC - 과거 남베트남(자유진영)의 대통령궁으로 - 현재는 개방되어 관광지, 회의장소로 사용 7:30~11:00, 13:00~16:00 개장(연중무휴) - 관람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1시간 소요 - 입장료(성인) : 30,000VND(약 1.5불)	호치민 시내 (10분)
전쟁 박물관 (Bao Tang Chien Tranh)		28 Vo Van Tan, Dist 3, HCMC -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단두대를 비롯해 베트남 전쟁 때 사용되었던 각종 유물 전시 - 고엽제 피해 및 전쟁의 잔학상을 고발하는 수많은 화보가 있음 7:30~12:00, 13:30~17:00 개장(연중무휴) - 입장료 : 15,000VND(0.8USD)	
호치민 박물관 (Ben Nha Rong)		1 Nguyen Tat Thanh, Dist 4, HCMC - 호치민이 생전에 사용하던 각종 유물 전시 - 프랑스와 중국의 건축양식을 조화시켜 1863년에 완공했으며 한 때 프랑스 총독부 영빈관으로도 사용 7:30~11:30, 13:30~17:00 개장(화~토) - 입장료 : 2000VND	
노틀담 성당 (Nha tho Duc Ba)		1 Cong xa Paris, Dist 1, HCMC 1880년에 세워진 호치민 시 최대성당 -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건축자재를 모두 프랑스에서 공수해 파리 노틀담 성당을 본떠 만듦 8:00~10:00, 15:00~16:00 개장(매일)	
다이아몬드 플라자 (Diamond Plaza)		34 Le Duan, Dist 1, HCMC - POSCO가 지은 호치민시 랜드마크 빌딩 1~층은 백화점이며 나머지는 오피스 및 아파트 - KOTRA호치민 무역관 7층 입주	
비텍스코 (Bitexco)		2 Hai Trieu, Dist 1, HCMC - 현대건설이 지은 초고층(68층) 빌딩 - 스카이라운지를 통해 호치민시를 한 눈에 조망가능 - 라운지입장료 : 200,000 VND(9USD)	



벤탄 시장 (Cho Benthanh)		▪ Le Loi, HCMC ▪ 유명한 재래시장으로 전통적 관광명소 ▪ 의류부터 식료품까지 다양한 제품 판매 ▪ 저녁 7시 이후 주변에 야시장(식당, 기념품)이 열림	
사이공 스퀘어 (Saigon Sqaure)		▪ 77~89 Nam Ky Khoi Nghia, Dist 1 ▪ 7 Ton Duc Thang, Dist 1, HCMC ▪ 176~181 Hai Ba Trung, Dist 1, HCMC ▪ 우리나라의 밀리오레와 유사한 쇼핑센터 ▪ 명품 이미테이션 등을 주로 판매	
구찌 터널 (Dia Dao Cu Chi)		▪ Cu Chi Dist, HCMC ▪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에 사용된 터널 ▪ 현재는 관광용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당시 보다는 터널 크기를 다소 크게 조정한 상태 ▪ 입장료 : 약 15불 소요	5시간 (왕복)
메콩 델타 (Mekong Delta)		▪ 베트남 최대의 곡창지대 (벼의 3모작 가능) ▪ 조그만 배를 타고 메콩 델타의 곳곳을 구경한 후 간단한 기념품 구매 가능 ▪ 투어 비용 : 약 20불(호치민시 여행자 거리 출발) ▪ 여행자 거리 : Pham Ngu Lao st, De Tham st, Dist 1, HCMC	5시간 (왕복)